신속하고 편리한 대출
동일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8241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12월 15일 (음력 11월 18일) 월요일

200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www.kuinou.ac.kr

이동재씨가 14일 나주시 산포면 농장에서 사료를 먹는 한우들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이씨는 체계적인 사육프로그램을 통해 고품질 한우를 생산,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전면 개방 파고를 헤쳐나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고품질 전남 한우 잘 팔려요"

나주시 이동재씨 '명품' 사육…年 억대 순이익 '대박'

'지리산 순한한우'도 미국산 상륙 후 판매 27% 급증

"미국산 수입 쇠고기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사육 프로그램 등으로 한우고기의 품질을 높일 경우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광주지역 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된 지 보름을 넘긴 14일,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한우농장에서 만난 이동재(52)씨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다.

20세 때 4마리의 송아지로 출발, 올해까지 32년 동안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한우만 사육해 온 이씨는 '외곬 축산인'으로 통한다. 소값 파동으로 서너번 좌절을 경험했으나, 그때마다 축사와 송아지 매입 두수를 늘리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해 오뚝이처럼 일어섰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설이 나돌면서 전국 축산농가들이 잔뜩 몸을 사리던 지난해 말에도 이씨는 1억2천만원을 들여 1천90㎡(330평) 규모의 새 축사와 자동사료 주입기를 설치했다. 사육두수도 100여마리에서 210마리로 크게 늘렸다.

"사육환경이 개선되고, 제 시간에 정확한 양의 사료를 주니까 1등급 출현율이 20~30%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다 당밀과 유기산을 섞은 미생물제를 먹여 발육속도와 내병성을 높였습니다."

이씨는 "사육이력을 알 수 있는 표식을 귀에 부착시켜 하루 두번씩 건강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아지 등을 포함해 연간 100여마리를 출하, 4억여원의 매출에 순이익만 1억여원을 올린 이씨는 내년 설날을 앞두고 24마리를 팔아 '대박'행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씨에게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배합사료값이 올 들어서만 예닐곱 차례 인상되면서 지난해보다 40% 가량 올라 순이익을 까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배합사료와 볏짚사료 등 사료비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 생산비용을 줄여줘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만 철저하게 관리되면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상륙에도 아랑곳없이 전남산 명품 한우인 '지리산 순한한우'도 상종가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판매시작일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축산물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본 결과 호주산 쇠고기와 일반 한우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순한한우의 매출액은 27%나 신장되는 등 경쟁력을 입증받고 있다.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 공인 인증'을 받은 순한한우는 장흥·고흥·순천·보성 등 전남 7개 시·군 축협으로 구성된 '지리산 순한한우 브랜드 사업단'을 통해 판매하는 한우를 말한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5년부터 사업단과 독점 공급계약을 맺고 연간 7천마리의 순한한우를 판매해오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5월 국내 최초 생명공학대학 개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내년 국고사업비 광주 4%·전남 12% 늘어 역대 최대

여수박람회·SOC 탄력 받는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2009년도 국고사업비가 올해보다 각각 4%와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광주시의 예산 규모는 1조6천492억원으로 올해 1조5천820억원 보다 4.3% 증액됐고 전남도는 5조8천912억원으로 금년의 5조2천292억원에 비해 12.7%나 늘어났다. 전남도의 내년도 예산 반영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용역비(5억원)와 가전로봇 육성(20억원), LED(발광다이오드) 실증센터 지원사업(10억원) 등 신규사업 40건에 775억원을 지원받게 돼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에 10억원, '2015 하계 U-대회' 광주 유치 지원비 18억원 등 12건의 지역현안사업에 모두 252억원이 반영됐다.

또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용역비 3억원)과 아시아 문화수도 조성기반사업(40억원), '2015 광주 하계U-대회' 유치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사업비로 2천572억원이 반영됐으며 옛 전남도청에 건립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에 300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광주-나주-장성) 건설사업비 258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전남도는 국고사업비 5조8천912억원 가운데 사회간접시설분야(SOC)가 3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비롯한 서남권 발전 기반시설 확충, 도내 동·서부권간 이동시간 단축, 동북아 물류·관광산업 육성 등 도정 역점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우주산업 기반시설 구축에 54억원이 반영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이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로 반영되거나 정부예산안보다 증액된 사업은 총 30건에 1천500억 원이며 특히 예결위 심의에서 500억원이 삭감됐던 호남고속철 건설과 21억원을 줄인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원안대로 반영됐다.

국회에서 새로 반영된 예산은 21건, 1천175억원으로 ▲광양항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131억원 ▲율촌자유무역지역 120억원 ▲전남대 의생명과학융합센터 60억원 등이다.

정부안보다 증액된 사업은 9건에 325억원으로 ▲무안 현경~해제 간 국도 4차로 확장에 70억원이 반영됐으며 ▲화순~광주간 국도 4차로 확장사업이 92억원에서 132억원으로, ▲벌교~주암간 국도 4차로 확장사업이 297억원에서 340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홍행기·윤영기기자 redplane@

이 대통령 "올해 착수할 사업 당장 시행"

한·중·일 금융위기 공조·북핵 폐기 원칙 합의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국회 예산안 처리와 관련,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4·5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정길 대통령실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대책회의를 긴급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정부 부처는 예산이 이른 시일내 집행돼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진행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밤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일본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3국간 동반자 관계 구축 및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긴밀한 협력에 합의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와 관련, "3국이 내수 확대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서로 교환하며 협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관계 장관들간 신속한 정보교환으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공동시스템을 갖추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 총리는 "적극 찬성한다"고 화답했고, 아소 총리는 "이 대통령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바로 실무차원의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NAVER 우리아이 키? 성장클리닉
전연한의원 371-1075~6

중·고생 겨울방학 합숙특강!
호남한샘학원